

올림픽 호재로 부동산 당분간 상승 경기장 사후활용 부담 최소화 관건

한국은행 '경제 5대 이슈' 발표

한미FTA·금리인상 등 꼽혀

인구감소·최저임금 대책 촉구

평창올림픽 경기장·시설 사후 활용방안과 생산인구 감소 문제 등이 신년 강원경제 성장률을 좌우할 이슈로 꼽혔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지난 31일 신년 강원지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5대 이슈로 △포스트 평창 △생산가능인구 감소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호조세 지속 여부 △한·미 FTA 개정을 발표했다.

평창올림픽 기반 구축이 마무리돼 강원지역의 신년 SOC 국비에 산이 9,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50.8% 감소한 가운데 '건설업 주도형 경제성장'을 벗어난 새로운 모델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신(新)강원(신관광, 신농업, 신산업, 신산업) 정책을 발표

◇2018년 강원경제 5대 이슈

①	포스트 평창 (Post-Pyeongchang)
②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지역인구 문제 본격화
③	최저임금 인상
④	부동산 호조세 지속 여부
⑤	한·미 FTA 개정

했으나 무엇보다 올림픽 경기장·시설의 사후 활용방안과 유지관리비 부담 최소화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산업정책 전문가들은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방안은 부동산 투자, 기업 유치에 가장 핵심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률 저하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08만5,000명으로 1년 새 9,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인구는 4,358명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1만3,000명 늘

었다. 최저임금 인상도 지역경제 성장을 좌우할 요인으로 분석됐다. 도내 숙박음식점 종사 근로자 비중은 전체 15.7%로 전국 평균(10.1%)에 비해 높다.

도내 부동산 시장의 호조 지속 여부도 관건이다. 한은은 교통망 확충 등으로 호조세가 당분간 이어지지만, 시장금리 상승 등 제약 요인도 상존한다고 봤다. 도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의 FTA 개정도 관건으로 꼽혔다.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사용 조항 포함과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 철폐 여부 등이 강원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한은 강원본부는 "생산인구 감소 대안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 정책 마련이 중요해졌다"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방안 논의 시 강원도 고용 산업 구조 등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 과제"라고 분석했다. 신하림기자

① 올림픽 SOC ② 부동산 돌풍 ③ 사드 ④ 오색케이블카 ⑤ 탈원전

2017년 지역경제 5대 이슈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2017년 강원경제에 영향을 끼친 5대 이슈로 △평창동계올림픽 준비·SOC 확충 △부동산 시장 호조 △사드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도내 현안사업 희비 교차 △탈원전 등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를 꼽았다.

한은은 평창동계올림픽 SOC 공사로 도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고,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부동산 시장 호조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세종, 서울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2.4%)을 보였으나, 가계 부채 증가 문제도 동시에 커졌다.

설악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조건부 허가를 받은 반면 양양플라이의 신규 LCC항공 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이 반려돼 엇갈린 것도 이슈로 꼽혔다. 특히 탈원전 정부 정책에 따라 삼척 원전 건설이 백지화된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연구 개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신하림기자